

일본 이류각시담(異類女房譚)의 유형 및 특징*

송 영 숙**

(e-mail : venussys@hanmail.net)

< 목 차 >

- | | |
|----------------------|-----------------|
| 1. 글머리 | 3. 일본 이류각시담의 특징 |
| 2. 일본 이류각시담의 유형 및 양상 | 4. 마무리 |

키워드 : 異類婚姻譚(a heterogeneous marriage tales), 異類女房譚(a bride heterogeneous marriage tales), 類型(a type), 様相(an aspect), 特徴(a characteristic)

1. 글머리

설화 연구자들은 흔히 인간과 동물이 혼인을 맺는 유형의 설화를 가리켜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이라고 한다. 혼인은 인류 역사의 주요한 원동력이며,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설화적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¹⁾ 이류혼인담에 관한 일본인의 우호적인 관심은 설화의 세계만이 아니라, 현대소설 가운데 『늑대 자식 아메와 유키(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나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²⁾ 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404)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문화학

1) 이점을 강조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谷川健一(1986), 『神・人間・動物 - 伝承を生きる世界-』, 講談社, p.4. 中村禎里(2006), 『日本人の動物観』, BNP, pp.75-78.

2) 예를 들면 호소다 마모루(細田 守)와 모토야 유키코(本谷有希子)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①細田 守(2012), 『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角川書店. 이 작품은 2012년에 영화화 되어 관객동원 약 340만 명, 흥행수입 42억 엔을 올리는 대히트를 기록했다. ②本谷有希子(2016), 『異類婚姻譚』, 講談社. 이 작품은 2016년에 제154회 가와바타(芥川) 상을 수상하였다.

점은 이류혼인담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현대의 기층문화 속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현대에도 지속되는 이류혼인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일본 구전설화의 이류혼인담 중에서 인간 남자와 동물이 여성으로 변신한 후에 혼인관계를 맺는 서사구조인 ‘이류각시담’에 한정하여 그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일본에서 이류혼인담이라는 학문적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무렵부터이다.³⁾ 이후 본격적으로 인간과 이류(異類)의 혼인을 주목하여 이류혼인담의 유형을 정립한 연구자는 세키 게이고(関敬吾)이다. 그는 일본 민담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민담집성(日本昔話集成)』(角書店, 1950-1958)에서 AT분류를 시도하여 동물민담(動物昔話), 본격민담(本格昔話), 소화(笑話)로 삼분하였다.

이후 세키 게이고는 녹음 기술이 발달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서 민담의 채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일본민담대성(日本昔話大成)』(角書店, 1978-1980, 전12권)을 증보·개정하였다. 이 중에서 이류혼인담은 본격민담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 <혼인·이류 사위(婚姻·異類聳)>, <혼인·이류각시(婚姻·異類女房)>, <혼인·난제 사위(婚姻·難題聳)>에 속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 이류혼인담의 유형을 구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류의 젠더(gender)이다. 요컨대 인간과 동물의 혼인 및 성적교섭에 관한 유형은 ‘인간 여자와 이류 사위의 혼인 유형’과 ‘인간 남자와 이류각시의 혼인 유형’으로 대별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류각시담은 <혼인·이류각시>의 유형에 포함되는 이야기이다.⁴⁾

한일에서 진행된 이류혼인담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대 문헌에 전해지는 이류혼인담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일본의 이류혼인담과 그리스 고대의 이류혼인담을 비교한 연구와,⁵⁾ 한중일 고대의 이류혼인담의 사례를 개관하고 비교한 연구가 있다.⁶⁾

3) 이류혼인담의 정의 및 구체적인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稲田浩二 他編(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pp.80-81.

4) 이류혼인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은 다음의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하였다.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 12』, 角川書店, pp.141-147.

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小島恵子(2004), 「日本上代の異類婚姻譚について」 『湘南短期大学紀要』(15), 湘南短期大学アカデミックサポート委員会, pp.64-72.

6)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小島恵子(2005), 「東アジア古代の異類婚姻譚について」 『湘南短期大学紀要』(16), 湘南短期大学アカデミックサポート委員会, pp.82-88.

이어서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고대 이류혼인담의 원형과 이류혼인담의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제시하여, 이류혼인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⁷⁾

이외에 이류혼인담을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⁸⁾와, 젠더를 중심으로 이류혼인담의 중일 비교연구를 통해 양국의 특성을 부각시킨 논문도 확인된다.⁹⁾

한국에서 진행된 일본의 이류혼인담에 대한 선행연구는, 먼저 구전설화에 묘사된 ‘뱀 각시’와 ‘뱀 신랑’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류혼인담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¹⁰⁾ 이어서 ‘일본의 물고기각시담에 관한 고찰’과 ‘일본의 여우각시담의 전승과 변용에 관한 고찰’, 그리고 ‘일본의 <천인각시> 유형에 관한 통시적 고찰’이 확인된다.¹¹⁾ 또한 ‘오키나와의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성적 해학성의 양상’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²⁾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간 남자와 여성으로 변신한 동물의 성적 교섭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묘사한 <이류각시담>은 일본의 구전설화에서 폭넓게 전해진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히 이류(異類)가 여성으로 변신하여 인간 남자와 혼인한 후에 자손을 번창시키거나, 부(富)를 창출하는 서사구조의 대표적 유형인 <뱀 각시(蛇女房)>, <여우 각시(狐女房)>, <학 각시(鶴女房)> 등에 한정하여 양상 및 특징을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남자와 이류각시의 혼인이 성사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혼인 후에 발생하는 이류각시의 행동 양상 및 혼인의 파탄, 특히 혼인의 결과에 따른 인간계의 변화 등에

7) 다음과 같은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武笠俊一(2013), 「三輪山の神の深き悔恨-箸墓造営と古代国家創建の前提条件-」『三重大学人文学部文化学科研究紀要』(30), 三重大学人文学部, pp.11-23. 岡部隆志(1999) 「憑依と神婚 -異類婚姻譚の発生-」『日本文学』(48)-5, 日本文学協会発行, pp.1-10.

8) 難波美和子(1993), 「異類婚姻譚の「異類の妻」と「異類の夫」」『文学研究論集』(10),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pp.117-129.

9) 吳艶(2011), 「異類婚姻譚におけるジェンダーの中日比較研究」『同志社国文学』(75), 同志社大学出版, pp.14-26.

10) 송영숙(2011), 「일본 민담 속에 묘사된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 -‘뱀 사위’와 ‘뱀 각시’를 중심으로-」『일본어문학』(51), 한국일본어문학회, pp.343-362.

11) 이시준 외(2013), 「일본의 물고기각시담(魚女房譚)에 관한 고찰」『일어일문학회연구』(86), 한국일어일문학회, pp.175-195. 이시준(2013), 「일본의 여우각시담의 전승과 변용에 관한 고찰」『외국문학』(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199-216. ____ (2016), 「일본의 <천인각시> 설화 유형에 관한 통시적 고찰-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와의 비교를 시야에 넣고」『외국문학연구』(6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527-548.

12) 김용의(2014), 「사키마 고에이(佐喜真興英) 『남도설화』의 성적(性的) 해학성」『일본어문학』(63), 한국일본어문학회, pp.243-261.

초점을 맞추어 이류각시담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 이류각시담의 유형 및 양상

일본 구전설화에 채록된 이류각시담의 유형은 『일본민담대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¹³⁾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이류(동물)가 여성으로 변신하여 인간 남자와 혼인 관계를 맺은 후에 발생하는 인간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이류각시가 후손을 낳거나 부를 창출하는 서사구조의 대표적 유형인 <뱀 각시(蛇女房)>, <여우 각시(狐女房)>, <학 각시(鶴女房)> 등의 사례를 제시한 후에, 이류각시담의 양상 및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뱀 각시>의 내용을 『일본민담(日本の民話)』(전26권)에 전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옛날에 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나무에 묶여있던 젊은 여자를 구해주었다.……(중략)……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으며, 드디어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산실에 들어간 아내가 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별이 없자, 남편은 아내가 걱정되어 그녀와의 약속을 어긴 채 몰래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중략)……산실에는 아내 대신 커다란 뱀이 갓 낳은 아이 주변에 꼬리를 틀고 있었으며, 이를 본 남편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이윽고 칠일이 지나자 아내는 원래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남자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나는 본래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뱀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산 속의 늪으로 가야만하니 부디 이 아이를 길

13) 이류각시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뱀 각시(蛇女房)>, <여우 각시(狐女房)>, <학 각시(鶴女房)>, <개구리 각시(蛙女房)>, <용궁 각시(龍宮女房)>, <고양이 각시(猫女房)>, <물고기 각시(魚女房)>, <조개 각시(蛤女房)>, <선녀 각시(天人女房)>. 関敬吾(1979), 『日本昔話大成 8』, 角川書店, pp.157-232.

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반신이 뱀으로 변하고 있었다.…(중략)…뱀 각시는 아이가 울 때 먹이라며 자신의 왼쪽 눈알을 빼주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자 눈알은 점점 작아지게 되었고, 남편은 뱀으로 변한 아내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한다. 그러자 이번에도 엄마 뱀은 서슴없이 오른쪽 눈알까지 빼주었다.…(중략)…이 모습을 본 아이는 엄마가 너무나 가여워서 눈물만 흘렸다. 그 순간 아이의 눈물이 엄마 뱀에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마법에 걸려있던 엄마 뱀은 마법이 풀려서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¹⁴⁾(밑줄은 필자)

[사례 1]은 『일본민담』에 채록된 <뱀의 눈알(蛇の目玉)>의 내용으로, 일본인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이다. 줄거리는 나무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여자가 나무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고 남자 아이를 낳는다. 이러한 <뱀의 눈알>의 서사구조의 특징은 행복한 결말과 불행한 결말을 맺는 두 가지로 전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¹⁵⁾ 먼저 행복한 결말은 [사례1]과 같이 엄마 뱀이 자신의 눈알을 아이에게 빼주고 아이를 무사히 성장시킨 후에, 마법이 풀려서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엄마 뱀의 마법이 아이의 눈물로 인해 풀리는 것으로, 특히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대목이다. 이점은 [사례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자가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뱀으로 변했으나, 남편이 금기를 파기하는 바람에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지만 뱀 각시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눈알을 빼주는 희생을 감수하였고, 그 결과 아이의 동정 어린 눈물로 인해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해피엔딩이다.

불행한 결말은 엄마 뱀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눈알 두 개를 다 빼주고 자신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밤과 낮을 알 수 있도록 종을 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미이데라(三井寺)의 종소리>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14) 斎藤正 外 2人(1974), 『日本の民話1』, 津軽・岩手 篇, 未来社, pp.439-445. 이하 본고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인용 사례는 필자의 줄역임을 밝혀둔다.

15) 『일본 민담』에 채록된 <뱀의 눈알>과 유사한 서사구조는 <용모의 구슬(龍母の珠)>(제5권), <나루세 강(鳴瀬の淵)>(제7권), <뱀 각시(蛇女房)>(제11권), <뱀 각시(蛇の女房)>(제18권), <뱀 각시(蛇女房)>(제19권), <가타메부네(片目ふね)>(제21권), <뱀 각시(蛇女房)>(제23권), <뱀의 습성(蛇の性)>(제24권), <시마바라 붕괴(島原くずれ)>(제25권) 등 총 10화가 확인된다. 송영숙(2011), 앞의 논문, pp.354-356.

[사례 2]

미이테라(三井寺)의 아래에서 아이가 작은 뱀 한 마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어부가 그 뱀을 구해준다. 미녀가 찾아와서 머물더니 부부가 되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낳을 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며 오두막으로 들어간다. 남편이 안을 몰래 들여다보니까 뱀이 있다. 남편이 도와준 바로 그 뱀이다. 뱀이 이 아이를 키워주라고 하며 눈알을 건네고 사라진다. 하지만 눈알을 관리에게 빼앗긴다. 남편이 미이테라의 밑으로 갔더니 여자가 나타나서 눈알을 또다시 건네주며, 자신은 양쪽 눈을 다 빼서 주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으므로, 밭과 낫을 알 수 있도록 종을 쳐주라고 말하며 사라진다.¹⁶⁾

[사례 2]는 『일본민담대성』에 전하는 내용으로, 뱀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인간에게 보은하기 위해 각시가 되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서사구조이다. 여기에는 <뱀 각시> 유형의 이야기가 본고에서 제시한 [사례 2] 외에, 다수의 설화가 채록되어 있다.¹⁷⁾ 이 가운데 특히 ‘미이테라’라는 절의 명칭이 거듭 언급되는 점과, 현재도 ‘미이테라’의 범종과 관련된 <뱀 각시>의 연기설화가 전해지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¹⁸⁾

[사례 1]과 [사례 2]를 구성하는 서사구조의 기승전결을 비교해 보면, 기승전까지 공통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 남자와 이류(여자의 모습)의 만남→ 인간 남자가 위기에 처한 동물(여자)을 구해줌→ 남자에게 여자가 찾아와서 부부가 됨→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에게 절대 보지 말라고 부탁함→ 남편이 금기를 어기고 산실을 몰래 들여다 봄→ 남편이 아내의 정체가 뱀인 것을 알게 됨→ 아내가 아이를 위해 눈알을 빼주고 사라짐’으로 전개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남자와 이류각시의 혼인→ 아이의 출생→ 금기의 파기→ 혼인의 파탄→ 뱀의 눈알로 아이를 무사히 성장시킴’이라는 공통적인 서사구조이다. 하지만 [사례 1]은 결론 부분에서 아이가 성장하여 엄마 뱀과 재회

16) 関敬吾(1979), 『日本昔話大成 2』, 角川書店, p.163.

17)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関敬吾(1979), 앞의 책, pp.157-175.

18) 예를 들면 <종의 기원형>의 연기담으로도 잘 알려진 미이테라의 또 다른 명칭은 운조지(園城寺)이다. 일본 삼대 부동명왕(不動明王) 중의 하나인 황부동(黃不動)으로 유명한 사원이며, 이곳의 관음당(觀音堂)은 사이고쿠(西国) 삼십삼소(三十三所) 관음영지 중 제14번째에 해당된다. 오미(近江) 팔경(八景)의 하나인 미이(三井)의 만종(晩鐘)으로 매우 유명하다. 미이테라와 동일한 만종의 기원담은 나라의 류센지(龍泉寺)에도 전해지고 있다.

하고, 눈알을 빼주는 엄마 뱀을 가엾게 여기는 아이의 순수한 눈물로 인해 엄마 뱀의 마법이 풀려서 인간이 된다는 행복한 결말이다. 이에 비해 [사례 2]의 결론은 아이를 위해 두 눈을 다 빼 준 엄마 뱀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 뱀을 위해 밤과 낮을 알 수 있도록 ‘미이데라의 종’을 울리게 되었다는 유래담이며 [사례 1]과는 달리 매우 안타까운 결말이다.

주목할 점은 [사례 1]과 [사례 2]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뱀의 눈알’의 특별한 성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눈알’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무사히 성장시킬 수 있는 주력(呪力)이 내포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뱀 각시는 남편이 금기를 파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간계를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에게 아이를 잘 길러주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인 눈알을 빼주었고, 아이는 엄마를 대신하는 뱀 눈알로 인해 무사히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뱀의 눈알’은 ‘이류각시’의 눈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보(呪宝)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엄마 뱀 자신은 소경이 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이를 위해 눈알을 빼주는 모성애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요컨대 이류각시인 뱀은 주력이 담긴 자신의 눈알을 아이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인간계에 자손을 번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이류각시는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대신에, 그에 대한 보은으로써 자손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뱀 눈알’은 인간계에 남겨진 아이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보의 특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결말에서는 [사례 1]과 같이 아이가 엄마 뱀의 희생을 보고 흘리는 눈물에 의해 엄마 뱀이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해피엔딩이 있는 반면, [사례 2]와 같이 소경이 되어 <종의 기원담>으로 유명한 연기설화를 제공하는 새드엔딩으로 나뉘고 있다.

이어서 이류각시담의 또 다른 유형인 <여우 각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3]

길가에서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이 여우를 잡아 놓고 있었다. 그때 마침 가난한 부자(父子)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여우를 놓아주게 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나를 색시로 받아들여 주세요.”라며 찾아왔다. 처음에 그 부자는 깜짝 놀라서 거절하였으나,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시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함께 살고 있는 동안 아이도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난지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사실 저는 당신이 목숨을 구해준 여우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늘날과 같이 당신과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 자식을 위해 피리를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피리에서 젓이 나왔는데, 아이는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며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¹⁹⁾(밑줄은 필자)

[사례3]은 『일본민담대성』에 채록된 가고시마 현(鹿児島県) 나제 시(名瀬市)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여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인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남자의 색시가 되어 아들을 낳고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남편에게 밝히고 홀연히 인간계를 떠나는 줄거리이다.

[사례3]과 [사례2]의 서사구조를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상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인간과 동물의 만남→ 남자와 이류각시의 혼인→ 아이의 출생→ 이류각시가 주보를 남기고 떠남’이라는 단락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사례3]에서 주목할 것은 [사례2]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특징이며, 이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류각시가 아이를 낳을 때 보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는 않는다는 점이며, 두 번째 남편에게 자신의 정체가 여우라고 밝히고 사라지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후손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언급하는 점이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아이는 엄마가 남기고 간 ‘피리’에서 나오는 젓을 먹고 건강하게 자랐으며,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내용은 [사례3]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사례3]은 이류각시가 남기고 간 ‘피리’에서 나오는 젓을 먹고 아이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이류각시가 낳은 아이는 주력이 담긴 ‘피리’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영웅탄생의 설화로 발전하는 서사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피리의 역할은 곧 신비한 힘이 담긴 ‘주보’를 상징하며, 주보를 소유한 이류각시야말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계속해서 <여우 각시> 민담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 関敬吾(1987), 『日本昔話大成2』, 角川書店, pp.218-219.

[사례 4]

아주 오랜 옛날 짐승들이 들끓어서 인간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여우 사냥을 시작했다. 아베노야스나(安部の保名)라는 사람이 절을 방문했는데, 사냥꾼에게 쫓긴 백여우가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숨어들어서 나오지 않았다...(중략)...사냥꾼들이 아베노야스나에게 여우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했다. 여우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변신하여 아베노야스나의 각시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은 도지마루(童子丸)라고 지었다...(중략)...그런데 아들이 세 살이 되었을 때 아베노야스나가 어디론가 사냥을 떠났다. 여우 각시는 어느 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깜박 졸다가 그만 여우로 변하고 말았다. 이때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살포시 눈을 떴는데, 그때 짐승이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세 살이 된 아이가 양양거리며 울자 여우가 이번에는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였다...(중략)...여우는 자신의 발톱을 물어뜯어서 나온 피로 쇼지(障子)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쓴 후에 시노다가(信田が) 숲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여우가 산으로 돌아가자 아이는 계속 울었다. 남편이 쇼지를 보니까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내가 잠이 푹 든 새에 그만 여우로 변하고 말았는데, 아이는 절대로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중략)...나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니까 만약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는 시노다가 숲으로 데리고 와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서 울자 남편이 아이를 업고 시노다가 숲으로 갔다...(중략)...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앞으로는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도록 젖을 충분히 먹일 것이예요.”라고 말한 후에 아이에게 구슬을 건네주었다. 그 후 부부는 헤어졌고 아이와도 이별했다. 도지마루는 성장하여 아베노 세이메이(安部の晴名)가 되었으며, 후에 일본 제일의 역자(易者)가 되었다. 그는 구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²⁰⁾(밑줄은 필자)

[사례4]는 『일본석화통관(日本昔話通観)』에 채록된 <여우 각시>담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우가 자신의 목숨을 사냥꾼들로부터 구해준 아베노야스나에게 보은하기 위해 그의 각시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이 후에 일본 제일의 역자(易者)인 아베노 세이메이가 되었다는 줄거리이다.

주목되는 점은 아베노 세이메이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이며, 특

20) 稲田浩二・小沢俊夫 編(1977-1990), 『日本昔話通観』(제4권), 同朋舎出版, p.294-296.

히 그의 모친이 이류인 ‘여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노 세메이는 저주에 의한 원령이나 온갖 잡귀들이 발호하던 헤이안(平安) 시대 최고의 음양사(陰陽師)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베노 세이메이와 같은 영능자(靈能者)의 모친이 여우라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기록은 고조루리(古浄瑠璃)나 에도 시대의 가나조시(仮名草子) 『아베노 세이메이 모노가타리(安部晴名物語)』 등에서도 보여 진다. 이로 미루어볼 때, [사례4]는 아베노 세이메이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 및 출생지 등이 수수께끼에 쌓여서 탄생한 에피소드가 전승되어 민담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이어서 [사례3]과 [사례4]의 서사구조를 비교해보면, ‘인간과 동물의 만남→남자와 이류각시의 혼인→ 아이의 출생→ 이류각시가 후보를 남기고 떠남→ 훌륭한 인물의 탄생’이라는 공통적인 전개이다. 하지만 [사례3]의 결론에서는 이류각시가 남긴 피리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성장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만 언급하는 반면, [사례4]의 결론에서는 훌륭한 인물의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아베노 세이메이와 같은 일본 최고의 음양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류각시인 여우가 남긴 구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아베노 세이메이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음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슬을 소유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모친인 여우가 남긴 구슬 자체가 후보라는 사실을 여실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사례3]과 [사례4]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로 전개된다. 즉 이류각시는 결국 인간계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지만, 그녀가 남긴 후손은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류각시가 남긴 특별한 후보의 성격과 후손에 대한 언급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주목할 것은 [사례3]에 등장하는 후보는 ‘피리’이며, 이 ‘피리’에서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젓’이 나온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내용까지만 언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례4]에 등장하는 후보는 결론적으로 ‘구슬’이며, 이 구슬로 인해 인간계에 남겨진 후손이 일본 최고의 음양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일본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인 ‘아베노 세이메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요컨대 [사례3]과 [사례4]는 인간과 이류각시와의 혼인에 의해 훌륭한 인물이 인간계에 탄생했으며, 특히 [사례4]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는 영웅설화의 탄생으로까지 발전되는 특징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류각시담은 <학 각시>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를 통해 인간과 <학 각시>의 이류혼인의 양상을 제시하기로 한다.

[사례 5]

어떤 가난한 젊은이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등에 화살을 맞은 학이 있었다. 그것을 본 젊은이가 화살을 뽑아주자 학은 기쁜 듯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 후 이, 삼일이 지난 저녁 무렵에 아름다운 여인이 젊은이의 집에 찾아와 머물렀다. 그 여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집에서 지냈다. 그들은 후에 혼인을 했으며 아내는 배를 열심히 짰는데, 남편에게 자신이 배 짜는 모습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서울에 가서 아내가 짠 배를 좋은 가격으로 팔았다. 그러나 남편은 욕심이 생겨서 배를 한 필 더 짜도록 부탁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아내가 배를 짜는 방을 들여다봤는데, 학이 자기의 깃털을 뽑아 섞어서 배를 짜고 있었다. 학은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본 이상은 여기에 있을 수 없으며 그 곳을 떠나고 말았다.²¹⁾(밑줄은 필자)

[사례5]는 니가타 현(新潟県) 료쓰 시(兩津市)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일본민담대성』에 채록되어 있다. 학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젊은이와 혼인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후에, 자신의 깃털을 뽑아 섞어서 짠 배로 은혜를 갚는다는 줄거리이다.

[사례5]를 앞에서 제시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의 서사구조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과 이류의 혼인은 성사되었으나 후손이 결손 되는 점이다. 즉 인간 남자와 이류 각시와의 혼인은 성립되었으나, 후손의 탄생 여부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례5]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학 각시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간계에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은 결여된 반면, 자신의 몸에서 털을 뽑아 섞어서 짠 배를 남편으로 하여금 좋은 가격에 팔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류각시인 학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인 털을 뽑아서 짠 배로 남편에게 부를 획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1) 関敬吾(1987), 앞의 책, pp.212-213. 이 외에 『日本昔話通観』에서도 [사례 5]와 동일한 서사구조의 <학 각시> 민담을 확인할 수 있다. 稲田浩二・小沢俊夫 編(1977-1990), 앞의 책, pp.307-309.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학 각시가 털을 뽑아서 섞어 짠 베는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류각시가 짠 ‘베’는 인간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가 아닌, 매우 질이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학 각시가 털을 섞어서 짠 베는, 앞의 [사례1], [사례2]에서 이류각시가 남편이 금기를 파기하여 인간계를 떠날 때, 아이를 무사히 성장시키기 위해 남기고 간 주보인 ‘뱀의 눈알’의 성격을 연상시킨다. 또한 [사례3]에서 짓이 나오는 ‘피리’의 역할이나, [사례4]에서 아베노 세이메이를 일본 최고의 음양사로 만들었던 ‘구슬’에 버금가는 주술적 기능이 내포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사례5]에는 [사례1], [사례2]에서와 같이 이류각시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에게 산실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요청한 ‘금기’ 모티브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단지 [사례5]에는 학 각시가 남편에게 자신이 베를 짜는 모습을 절대 보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다.

계속해서 학 각시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민담의 또 다른 사례를 통해 학 각시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6]

옛날 어느 곳에 정직한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학 한 마리가 내려왔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학이었는데,...(중략)...남자가 살펴보니 날개 죽지에 화살이 꽂혀있었다. 남자가 화살을 뽑고 상처를 닦아주자 학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남자는 기뻐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냥꾼의 눈을 피해 다니렴.”이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학을 놓아주자, 학이 마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 위를 세 번 빙빙 돌며 날더니 사라졌다...(중략)...남자는 그날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별이 반짝일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보니 집 입구에 아름다운 여자가 서서 “피곤하시겠네요.”라며 상냥하게 맞아주었다...(중략)...“나는 당신의 각시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각시를 맞아들일 수도 없으며, 각시가 온다고 해도 둘이 먹을 쌀도 부족합니다.” “쌀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깐요.”...(중략)...신기하게도 각시가 가지고 온 작은 주머니에는 두 사람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와서 생활은 곤란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각시가 남자에게 “청이 있습니다만, 베틀을 한 대 만들어주시겠어요?”라고 부탁했다. 남자가 베틀을 만들어주자 각시는 기뻐하며, “칠일 간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라고 남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중략)...칠일이 지난 후 각시가 조금

야윈 모습으로 나타나 남자에게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베를 펼쳐놓았다. “당신 내일 이것을 마을에 가지고 가서 파세요. 백 냥에 팔수 있을 거예요.”...(중략)...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베 짜는 소리가 들려서 몰래 안을 훑쳐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각시가 아니고, 학이 흰털을 뽑아서 베를 짜고 있었다. 학은 바로 베를 짜는 것을 멈추고 남편 앞으로 와서, “슬픈 일이지만 이런 모습을 본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저는 실은 당신이 살려준 학인데,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으로 변신해서 당신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가 짠 베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늘로 올라가버렸다.²²⁾

[사례6]은 『일본민담백선(日本昔話百選)』에 채록된 이와테 현(岩手県) 기타카미 시(北上市)에 전하는 내용이다. 학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정직한 남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하여 혼인한 후에 베를 짜서 보은한다는 줄거리이다.

학 각시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례6]과 [사례5]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남자가 학의 몸에 꽃힌 화살을 뽑아준다.→ 미인이 찾아와서 남자의 각시가 된다.→ 각시가 남편에게 절대로 자신이 베 짜는 모습을 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남편은 각시가 짠 베를 비싼 가격에 판다.→ 남편은 각시가 베 짜는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고, 각시의 정체가 ‘학’인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안 각시가 인간계를 떠난다.’ 등으로 공통적으로 전개된다.

단지 [사례6]에는 [사례5]와는 달리, 인간 남자와 학이 만나는 과정과 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과정, 그리고 각시가 가지고 온 작은 주머니에서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쌀이 끊이지 않고 나오며, 남편에게 베 짜는 모습을 들켰을 때 자신은 남편이 살려준 학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요컨대 [사례6]에는 [사례5]에 등장하지 않는 학 각시가 가지고 온 작은 주머니의 정체가, 매일 쌀이 나오는 ‘주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보의 성격은 앞에서 제시한 [사례1]과 [사례2]에서의 ‘뱀 눈알’, [사례3]에서의 ‘피리’, [사례4]의 경우는 ‘구슬’과 유사한 성격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단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에 등장하는 주보의 성격은 인간계에 남겨진 아이

22) 稲田浩二·稲田和子(1971), 『日本昔話百選』, 三省堂, pp.55-59.

를 위한 것이라면, [사례5]와 [사례6]에 제시된 주보는 남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를테면, 이류각시 민담에 등장하는 주보의 특징은 인간계에 존재하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며, 인간계를 매우 이롭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례6]의 또 다른 특징은 남편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들켜버린 학 각시가, 자신은 남편이 구해주었던 학이며 은혜를 갚기 위해 이곳에서 함께 살았노라고 밝히는 대목이다. 학 각시는 먼저 자신이 남편에게 보은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베를 짜주었다고 자초지종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이 베를 짜는 동안에 방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인간계를 떠나게 되면서 둘 사이의 혼인은 파국을 맞이한다.

정리하면 학 각시는 남편에게 자신이 행한 ‘보은’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이별’을 해야만 하는 이유까지 분명히 밝히고 인간계를 떠나 이계로 돌아가게 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사례6]은 이류각시가 인간계에 등장한 이유, 즉 은혜를 갚기 위해 일부러 남자의 각시가 된 과정을 설명했으며, 나아가 이별하는 이유로는 남편이 금기를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례6]의 내용은 인간과 이류각시와의 만남, 금기의 제시와 파기, 주보의 등장, 혼인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이류각시담을 구성하는 서사적인 모티브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의 서사구조와는 달리 후손에 대한 언급은 결여되었으나, 인간계에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가장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3. 일본 이류각시담의 특징

본고에서 논의한 일본 이류각시담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는 인간 남자와 인간에게 도움을 받은 동물이 이류각시로 변신하여 혼인하는 것을 계기로 전개된다. 인간계와 이류계의 만남에 의해 파생된 혼인은 이류각시가 남편에게 금기를 제시하지만 남편이 파기함에 따라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이별하게 되나, 결과적으로 인간계에 후손과 부를 창출하는 물건을 남기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전승되는 이류각시담의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또는 여자)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둘째, 남자가 동물(또는 여자)을 구해준다.

셋째,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에게 찾아와서 혼인관계를 맺는다.

넷째,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섯째, 아내는 남편에게 강력한 금기를 제시하지만, 남편은 금기를 파기한다.(단 여우 각시인 경우에는 금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째, 남편에게 아내의 정체(眞體)가 탄로 난다.(또는 아내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힌다.)

일곱째, 아내가 주보를 남기고 인간계(眞界)를 떠나서 이계로 돌아간다.

여덟째, 후손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아베노 세이메이)이 되거나 부를 제공하는 물건(베)을 남긴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류각시담>에 묘사된 인간계와 이류계의 접촉은 먼저 인간이 위기에 처한 이류계의 동물을 구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은혜를 갚는 이류계의 공통적인 반응은 동물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등가교환(等價交換)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²³⁾ 요컨대, 인간 남자에게 보은하기 위해 이류인 동물이 각시로 변신하여 후손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이류각시가 남편에게 자신이 출산하는 모습이나, 또는 베를 짜는 모습을 절대로 '보지 마라'고 하는 강력한 금기 모티브이다. 하지만 남편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내와의 금기를 파기하기 때문에, 이류각시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계에 아이를 남기고 떠나게 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인간계에 남겨진 자식을 배려하는 이류각시의 태도이다. 이류각시는 금기를 파기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계를 떠나지만, 남겨진 어린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보를 건네고 간다. 예를 들

23)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연구를 참조. 川森博司(1989), 「日本 異類婚姻譚의 構造分析-交換構造를 중심으로-」 『比較民俗学』(5), 比較民俗学会, pp.67-89.

면, <뱀 각시>의 유형에서는 ‘뱀 눈알’을 아이를 위해 빼주었고, <여우 각시>의 유형에서는 남기고 간 ‘피리’에서 젖을 나오게 하여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또 다른 <여우 각시>의 사례에서는 구슬을 남겨서 그 아이가 성장하여 일본 제일의 역자(易者)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학 각시>의 유형에서는, 학 각시가 자신의 털을 뽑아서 섞어 짠 아름다운 ‘베’를 남편에게 내다 팔게 하여, 집안에 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요컨대 이류각시담에 등장하는 이류각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계에 ‘후손의 번영’과 ‘부’를 창출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인간계를 풍요롭게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단지 여우 각시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금기 모티브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이류각시담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정리하면, <이류각시담>의 유형은 인간계와 이류계의 접촉을 묘사한 공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발단은 인간계의 도움을 받는 이류 동물과의 접촉으로 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계는 동물이 여성으로 변신한 이류각시와의 혼인으로 인해 자손을 번성시키고 부를 창출시키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를테면 인간계에 미친 이류각시의 온가에시(恩返し)에 의해 자손이 번성하고 부가 창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계와 이류계 간의 등가교환의 원리가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먼저 협의적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목숨을 구한 동물이 인간에게 보은하기 위해 인간의 이류각시가 되어 후손을 번창시키거나 부를 창출시킨다는 원리가 일차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점을 광의적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이류각시가 자연을 대표하는 동물이라고 간주할 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조건 없이 무한한 혜택을 받는 증여교환(贈與交換)의 심성인 온오쿠리(恩送り)의 개념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테면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6]에 등장하는 후보가 이 점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된다. 왜냐하면 후보란 인간계에 존재하지 않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된 보물로서, 인간계에서 부족한 물건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동시에 후손을 무사히 성장시키는 신비로운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후보란 이류각시가 금기를 파기한 남편 때문에 비록 인간계를 떠날지라도, 후손의 완전한 성장은 물론 그 후손이 영웅으로 탄생하기 위한 핵심

적 역할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례5]의 학 각시에서와 같이 특별한 주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이류각시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인 털을 뽑아서 섞어 짠 훌륭한 베를 완성하여 인간계에 부를 창출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른바 주보란 이류각시와는 불가분한 특별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특별함이란 인간계에 존재하지 않는 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이로움과 번영을 초래하는 ‘후손’의 탄생과 ‘부’의 창출로 표상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이류각시담에서 이류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최초의 등장인물은 인간계의 남성이다. 따라서 인간계의 남성이 바라보는 보음을 하는 주체인 ‘이류각시’라는 존재는 모성애를 함유하는 동시에, 그 모성애는 곧 인간이 자연에서 바라고 누리는 무한한 혜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일본 민담에 반영된 이류각시담의 특징은 먼저 협의적 시각으로 등가교환의 원리인 이류각시의 온가예시를 들 수 있다. 이 점을 광의적 시각으로 확대하면 증여교환의 원리로 온오쿠리의 개념, 즉 인간이 자연을 통해 누리는 무한한 혜택의 의미가 모성애와 교차되어 투영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4. 마무리

본고는 일본의 이류각시담 중에서 이류인 동물이 여성으로 변신하여 인간 남자와 혼인한 후에 자손을 번창시키거나, 부(富)를 창출하는 대표적 유형인 <뱀 각시>, <여우 각시>, <학 각시> 등에 주목하여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일본 이류각시담의 양상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류각시담에는 인간계와 이류계의 접촉으로 인해 인간계에 파생되는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성하는 서사구조의 공통적인 모티브는 인간과 이류의 ‘만남’, ‘혼인’, ‘금기의 파기’, ‘주보’, ‘이별’ 등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인간계에 발생한 변화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자손의 번영’과 ‘부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뱀 각시> 유형에서 이류각시는 금기가 파기되어 인간계를 떠나

지만 인간계에 결과적으로 후손을 남기게 된다. <여우 각시> 유형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남겨진 후손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거나, 그 후손의 이름이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베노 세이메이와 같은 구체적인 인물로 언급되는 영웅설화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어서 <학 각시> 유형에서는 인간과 학 각시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자손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지만, 반면에 학 각시가 자신의 털을 뽑아서 썩어 짠 베를 남편에게 고가에 팔게 하여 부를 제공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인간계와 이류계와의 교섭을 묘사한 이류각시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은 ‘후손의 번영’과 ‘부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라고 간주할 때, 현재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둘째 인간계 남성과 이류계 여성의 혼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자손과 부의 증대’는 전통사회에서의 남성중심적인 혼인의 의미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예컨대 이류각시가 남긴 후보와 베를 짜는 등의 주술적인 행위로 인해 파생된 인간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남성 중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성과의 공생의 의미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전통사회에서의 혼인이 의미하는 ‘자손의 번영’과 ‘부의 창출’이, 결론적으로 이류각시를 통해 민담에 투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고에서는 이점을 일차적으로 협의적 시각인 이류각시의 온가시에 의해 발생한 등가교환의 원리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류각시가 단순히 보은하기 위해 후손을 낳아주는 것 외에, 금기를 파기한 남편 때문에 인간계를 떠날 때 남겨진 후손을 위해 후보를 건네는 것은, 인간이 자연계에서 누리는 무한한 혜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점은 단순한 등가교환의 원리인 온가에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광의적 시각인 증여교환의 원리로 해석하였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베푸는 선의는 단순히 그 상대에게도 보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내뿜는 것처럼 미래에 더 큰 것으로 보답 받을 수 있다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이류각시담은 ‘이계’와의 접촉을 거듭해온 고대인들의 경험이, ‘금기’ 모티브를 통해 ‘영웅의 탄생’이라는 신화적인 요소와 결합된 특징이 나타난다. 예컨대 민담에 반영된 인간과 이류각시와의 공생적 의미는 영웅설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모티브이며, 서사구조에서 드러나는 ‘만남’과 ‘이별’, ‘금기’의 파기와 ‘후보’ 등

의 공통적인 모티브는 인간계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류각시가 인간계에 남기는 주보의 특성으로, 주보는 후손을 무사히 성장시키거나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이류각시담은 영웅의 탄생을 말하는 영웅설화와, ‘금기’를 파기할 때 발생하는 신화적인 모티브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매체가 바로 특별한 ‘주보’의 성격에서 드러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인간과 이류각시와의 혼인을 묘사한 이류각시담의 특징은, 먼저 인간계는 이류각시의 보은을 통해 후손의 번영과 부가 창출되는 변화를 맞이했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등가교환의 원리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점은 이류각시가 떠나면서 남기는 주보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온가에 시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오쿠리의 개념인 증여교환의 원리도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이류각시라는 특성을 모성애와 교차시켜서, 자연이 인간에게 무한히 베푸는 것을 동경하는 인간의 기본 심성인 증여교환의 원리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일본 설화에 묘사된 이류각시담에 대한 연구는 본고에서 조명한 연구방법 외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의 이류각시담의 사례도 시야에 넣고, 동아시아 이류각시담의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용의(2014) 「사키마 고에이(佐喜真興英) 『남도설화』의 성적(性的) 해석성」 『일본어문학』(63), 한국일본어문학회, pp.243-261.
- 송영숙(2011) 「일본 민담 속에 묘사된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뱀 사위’와 ‘뱀 각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51), 한국일본어문학회, pp.343-362.
- 이시준 외(2013) 「일본의 물고기각시담(魚女房譚)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86), 한국일어일문학회, pp.175-195.
- 이시준(2013) 「일본의 여우각시담의 진승과 변용에 관한 고찰」 『외국문학』(5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pp.199-216.
- _____ (2016) 「일본의 <천인각시> 설화 유형에 관한 통시적 고찰-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의 비교를 시야에 넣고」 『외국문학연구』(6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527-548.
- 稲田浩二 他編(1977)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pp.80-81.
- 稲田浩二・稲田和子(1971) 『日本昔話百選』, 三省堂, pp.55-59.

- 稲田浩二・小沢俊夫 編(1977-1990)『日本昔話通観』(제4권), 同朋舎出版, pp.294-296, pp.307-309.
- 岡部隆志(1999)「憑依と神婚-異類婚姻譚の発生-」『日本文学』(48)-5, 日本文学協会発行, pp.1-10.
- 川森博司(1989)「日本 異類婚姻譚의 構造分析-交換構造를 중심으로-」『比較民俗』(5), 比較民俗学会, pp.67-89.
- 小島恵子(2004)「日本上代の異類婚姻譚について」『湘南短期大学紀要』(15), 湘南短期大学アカデミックサポート委員会, pp.64-72. (DOI : info:doi/10.18924/00000787)
- _____ (2005)「東アジア古代の異類婚姻譚について」『湘南短期大学紀要』(16), 湘南短期大学アカデミックサポート委員会, pp.82-88. (DOI : info:doi/10.18924/00000808)
- 吳艷(2011)「異類婚姻譚におけるジェンダーの中日比較研究」『同志社国文学』(75), 同志社大学出版, pp.14-26.
- 斎藤正 外 2人(1974)『日本の民話1』, 津軽・岩手 篇, 未来社, pp.439-445.
- 関敬吾(1979)『日本昔話大成 8』, 角川書店, pp.157-232.
- _____ (1987)『日本昔話大成 12』, 角川書店, pp.141-147.
- 谷川健一(1986)『神・人間・動物 -伝承を生きる世界-』, 講談社, p.4.
- 中村禎里(2006)『日本人の動物観』, BNP, pp.75-78.
- 難波美和子(1993)「異類婚姻譚の「異類の妻」と「異類の夫」」『文学研究論集』(10),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pp.117-129.
- 細田 守(2012)『おおかみこどもの雨と雪』, 角川書店.
- 武笠俊一(2013)「三輪山の神の深き悔恨-箸墓造営と古代国家創建の前提条件-」『三重大学人文学部文化学科研究紀要』(30), 三重大学人文学部, pp.11-23.
- 本谷有希子(2016)『異類婚姻譚』, 講談社.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日本の異類女房譚の類型および特徴

宋英淑

本稿では異類の動物が女性に変身して人間の男と婚姻した後、子孫を繁栄させ、富を創出する叙事構造である<蛇女房>、<狐女房>、<鶴女房>などに注目して類型および特徴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異類女房の民譚の特徴は第一に、人間界は異類女房の恩返しによって子孫の繁栄と富が生まれという変化を迎えたが、これを本稿では等価交換の原理として分析した。いわゆる、人間界に子孫の繁栄と富の創出という画期的な変化が起きたのだ。第二に、人間界の男性と異界の女性との婚姻によって派生する子孫と富の増大は伝統社会での男性中心の婚姻の意味が反映された結果と見ることができる。第三に、異類女房の民譚は異界との接触を繰り返してきた古代人の経験が‘タブー’というモチーフから‘英雄の誕生’という神話的な要素と結合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要約すると、人間界は異類女房の恩返し、つまり等価交換の原理によって子孫の繁栄と富が生まれる変化を迎えた。しかしこれを異類女房が人間界を出る時、子孫のために残す呪宝の特性について再考すると、単なる恩返しではなくて恩送りの意味である贈与交換の原理が投影されたと解釈できる。

A Study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Bride in the Japanese Heterogeneous Marriage Stories

Song, Young-Sook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bride and its characteristics, focused on <snake bride>, <fox bride> and <crane bride> as narrative structure to flourish the descendants or create wealth after the marriage with the human male by the animal as heterogeneity which has turned into fema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heterogeneous marriage stories about brid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world of mortals has faced the changes to create the descendants' prosperity and wealth through the gratitude of heterogeneous bride, and this study was to analyze it by using the principle of equivalent change. Besides, there arose radical change spreading to the world of mortals.

Second, the 'increase in descendant and wealth' derived by the marriage for the male in the world of mortals and the female in the heterogeneous world can be seen as result reflecting the meaning of male-centered marriage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ird, the heterogeneous marriage stories about bride can be seen as combination between the experience by the ancient people who have repeated the contact with the 'heterogeneous world' and the mythical elements like 'birth of hero' through 'taboo' motif.